

안전,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갑진 열매



정석철 주임

취재 | 임재근 기자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정석철 주임은 원주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당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던 때, 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안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1992년 안전관리자로 이곳 원주기독병원에 입사하여 흐른 세월이 어느덧 16년, 중년이 되어 인생의 깊이를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안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입사 초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안전관리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직종이 30여개가 넘고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 교대근무가 잦은 것 등은 그 동안 막연히 공부해 왔던 제조업 위주의 안전관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었다. 기존 산업안전에 관련된 자료가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자료 확보도 어려웠지만 구한 자료를 병원이라는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더욱 막막했다. 자료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규정이나 지침을 병원 사업장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양식도 실제 조사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해야 했다. 교육 자료나 규정 지침을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원주기독병원만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금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이다.

이곳 원주기독병원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협착이나 말림, 추락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감염, 결핵과 같은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감염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화학약품이나 의약품 사용에 의한 폭발, 화재의 위험도 크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올 때 환자의 병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호흡이나 혈액 등에 의한 감염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감염된 병은 금방 증세



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잠재위험요인들은 사전에 찾아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통해 예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병을 고치고 간호하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볼 수 있도록 투철한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간호하는 만큼 자신의 건강도 돌봐야 한다고 그는 당부한다. 모든 일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 또한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 실천이 필요하다.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오늘도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한다.